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조경수목 산책 (Ⅱ X V)

— 피나무와 보리수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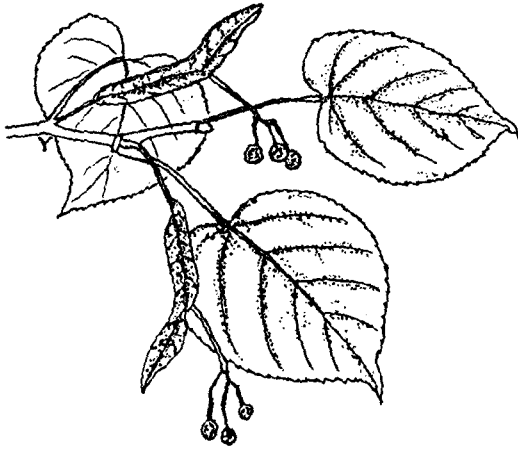


▲아름다운 찰피나무 법주사 경내 1989.6.10

피나무속에 포함되는 나무들은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교목이고 앞에는 긴 잎자루가 있고 잎 아래 쪽은 다소 뻐뻐해진 심각(心脚)이

고 앞에는 대체로 털이 나 있다. 꽃은 작은 모양이나 향기가 강한 편이고 꿀이 얻어진다. 열매는 둥글고 단단하며 성숙해도 갈라지

는 일이 없다. 열매 표면에는 짧은 털이 뽀뽀히 나 있다. 그 안에 한 두개의 종자가 들어있다. 열매 껍질이 두텁고 잘 썩지도 않아서



▲ 피나무의 잎, 포 그리고 열매

종자발아에 큰 지장을 준다. 그래서 피나무는 종자증식이 쉽지 않다.

열매대궁은 일부가 기이하게도 좁고 긴 날개잎 모양을 취하는데 이것이 피나무 속의 예외없는 공통 형태적 특성이다. 이것이 피나무속 수종의 두드러진 모습으로 속의 식별에 착오를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을 포(苞) 또는엽상포(葉狀苞)로 말한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포의 중간쯤에서 다시 과경(果梗)이 발달하고 갈라지면서 그 끝에 둥근 열매를 단다. 열매의 모양과 열매표면에 발달하는 능선(稜線)이 있고 없는 것으로 피나무속의 종이 구별되고 있다.

그림 1은 피나무의 잎과 열매대궁의 포와 그리고 열매를 보이는 것인데 피나무류는 대체로 이러한 기본형을 바탕으로 하고 다소의 변이가 있을 뿐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피나무속의 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라고 있으나 이북지방에 더 많다. 말하자면 피나무류는 우리나라의 높은 산 그리고 아한대에 즐겨 자라는 나무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북부지방, 캐나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제국, 소련, 폴란드에서는 흔한 수종으로 되어 있고 가로수, 공원수 등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피나무류는 한랭한 기후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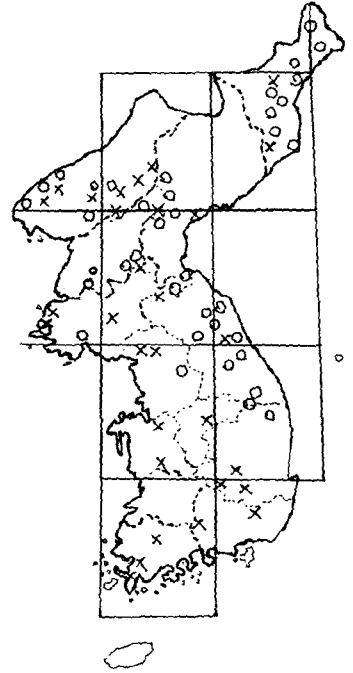
그림 2는 우리나라의 피나무속 중 흔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달피나무(또는 피나무)와 찰피나무의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달피나무는 찰피나무보다 더 북쪽에 나는 경향이 있고 찰피나무는 전국적 분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수종은 모두 열매에 능선이 발달하지 않으며 성상모(星狀毛)가 밀생해 있다.

울릉도에 나는 것을 섬피나무라 하며 잎 뒤 맥의 겨드랑이에 미모(微毛)가 나있고 포엽(苞葉)에는 흰 색의 성상모가 밀생해 있다.

피나무의 명칭

피나무란 이름은 피목(皮木)에서 온 것으로 본다. 피나무에 대한 한문자로는 피나무 단(楸), 피나무 가(榎) 그리고 피나무 이(柁)가 있다. 이밖에 보리수(菩提樹)라고도 한다. 그런데 보리수라는 명칭은 무척 넓게 적용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정태현 박사의 『한국식물도감』(1956)을 보면 보리수(菩提樹)라



▲ ○ : 달피나무 × : 찰피나무 분포도



▲찰피나무의 잎과 열매 전남 백양사 경내 1973.7.25

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수종에 다 음들이 있다.

- (1) 모감주나무 락목(樂木), 보리수(菩提樹)
- (2) 무환자나무 무환수(無患樹), 菩提樹

(3) 피나무 피목(皮木), 菩提樹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열매로 염주를 만들 수 있다는 특색이 있다.

염주는 원래 108번뇌에 관련해서 108개를 실에 꿰어 쓰지만 간략하게 그 반인 54개 또는 그 반인 27개의 것도 쓰인다.

따라서 열매가 염주로 될 수 있다면 불교에 인연을 붙여서 보리수나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리(菩提)는 '모지' 또는 '보리'로 읽으며 반야심경에도 두 번 나타나고 있다. 보리(菩提)는 불교용어이고 그 뜻의 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대사전(민중서림)에 보면 『보리(범어, Bodhi, 보우디)란 불교에서 최상

의 이상인 불타정각(佛陀正覺)의 지혜, 번뇌를 잊고 불멸의 진리를 깨달아 얻는 불과(佛果), 불타정각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일』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염주가 보리에 관련되는 절대적인 불교상의 도구의 하나라면 염주를 만들 수 있는 열매를 다는 나무는 모조리 보리수나무로 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전에는 「보리수(菩提樹)라는 나무는 범어로 보우디 드루마(Bodhidruma)라 하고 석가가 그 아래에 앉아서 도를 깨달아 정각(正覺)을 성도(成道)했다는 나무로 인도의 가야산에 있다』고 했다.

이야기가 앞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피나무의 피(皮)가 얻어진 내력은 피나무의 껍질의 뛰어난 이용가치에서 온 것이다. 즉 피나무의 수피는 여러모로 이용되었지만 기와장 대신으로 지붕을 덮는 쓸모가 있었고, 껍질의 섬유는 삼보다 강인해서 신발 만드는 재료로 또 끈, 밧줄, 그물같은 것을 만드는데 썼다. 껍질의 귀중함이 이 나무의 이름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안북도에 가도(槪嶋)라는 곳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는 피나무 가로 읽을 수 있고, 도는 섬도(島)와 같은 글자이다. 그런데 그 곳

▼왕피나무의 위용 경북 부석사 경내 1992.8.8





▲힘있는 찰피나무 경남 고성 옥천사 경내 1988.5.21

사람들은 가도라 하지 않고, 피도(皮島 또는 皮木)로 부른다. 이것은 가을 피나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피목은 가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피나무로 만든 밧줄은 매우 강인해서 옛적에는 불창(火槍)을 적군진지에 던지는데 쓰였던 모양이다. 특히 수피의 색깔이 흰 강가(糠槪)가 좋았다고 한다.

槪質白者曰糠槪 其皮可製繩
引火槍 軍中需之

이때 강가는 찰피나무를 말하고 일명 백가(白槪)라고도 한다.

피나무 껍질로 방직을 해서 옷감으로도 했다. 피나무의 껍질 섬유를 얻자면 줄기 직경 4cm 쯤 되

는 것을 초여름에 끊어 바로 한쪽에서 껍질을 벗기는 것인데 박피가 쉽게 된다. 얻어진 껍질을 잿물로 삶아서 외피를 제거하고 그 뒤 흐르는 물에 담구어 표백시킨다. 그 뒤 이것을 실로 해서 옷감을 짜는데 무명실을 섞어서 짜기도 했다.

보리수나무(보리자나무)

학명을 탈리아 미쿠엘리아나(Tilia miqueliana)라 하는 피나무속의 한 종인데 중국산의 나무로 절간 부근에 심어지고 잎자루와 꽃대궁 그리고 어린 가지에 회백색의 성모(星毛)가 밀생해 있다. 낙엽성의 교목이다. 열매에는 5개의 능선이 있고 염주를 만들 수 있다.

기록에 중국 남경지방에 많고 한국에도 있으나 일본에는 야생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사찰에는 이것을 심고 있다고 했다. 석가가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도보리수나무와는 다른 것이다. 잎의 모양이 서로 닮아 있어서 이 나무를 보리수나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나는 피나무속의 나무는 잎이 서로 닮고 이곳 보리수나무와도 흡사하며 열매로 염주를 만들 수 있는 까닭에 통속적으로 모름지기 보리수나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중국산이므로 중국보리수나무를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희랍신화의 피나무

유럽에 있어서는 피나무가 인간들의 삶에 더 깊게 파고 들어 우리나라의 소나무 문화처럼 피나무 문화같은 것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것은 유럽에는 피나무가

▼찰피나무의 가을 경남 고성 옥천사 경내 1988 가을





▲당당한 모습의 찰피나무 전남 백양사 경내 1993.7.3

많고 이 나무가 깨끗하며 아름다운 용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나무의 생활상의 쓰임새가 넓고 귀중했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꽃에서는 꿀이 흐르고 향기가 좋으며 공원수, 가로수로 심었을 때 잘 자리주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는 데도 있다.

독일 베를린의 가장 변화한 거리의 이름이 『피나무의 거리』(Unter den Linden=under the limes)인 것을 상기해 볼 만하다. 피나무를 독일에서는 린덴(Linden)으로 말하고 영어로는 라임(lime)으로 말한다. 유명한 식물학자 린네의 성도 피나무를 뜻한다. 독일의 도시 라이프치히

(Leipzig)도 그 뜻은 피나무이다. 이처럼 피나무는 유럽인들에게는 가까이에서 있는 사랑의 나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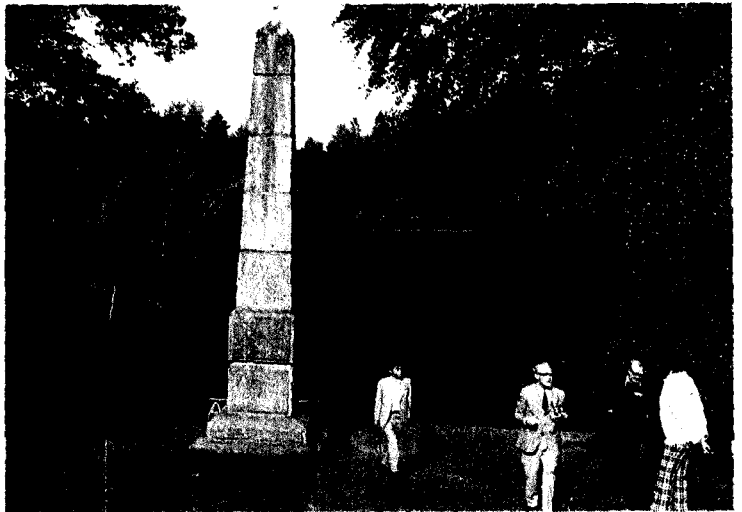
피나무에 얽힌 회람신화의 한 토막은 인간애의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에는 그것을 요약해 둔다.

그것은 필레몬(Philemon)과 보시스(Baucis)의 이야기이다. 필레몬은 보시스의 남편이었고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농부였다. 하늘의 신 제우스(Zeus)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왔다. 제우스 신은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저녁 한 끼를 구걸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냉담했다. 끝으로 제우스 신은 가난한 필레몬의 집문을 두드렸다. 이때 필레몬과 보시스는 극진한 친절로 제우스 신을 환영했다. 그때 그들은 이 사람이 제우스 신인 것은 알지 못했다.

이어지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음 영시로 설명한다. (영시원문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 버리고 읽어 내려갈 수 있다.)

Kindly did gods invite
To his poor hut to pass the night;
And then the hospitable sire
Bid Goody Baucis mend the fire
While he from out the chimney took
A fitch of bacon off the hook,
And freely from the fattest side
Cut out large slice to be fried;
The stepped aside to fetch them drink,
Filled a large jug up to the brink,
And saw it fairly twice go round
폴이해 본다.
친절하게 신들을 초대해서

▼린네 집뒤의 구주피나무 스웨덴 1974.9.10





▲ 피나무의 아름다운 홍엽, 루슬라스틀광장 스톡홀름 1971.9.18

그들의 가난한 집에 그 밤을
지나도록
그리고 친절한 아저씨는
착한 보시스에 불을 지피게
하고,
밖으로 나가 굴뚝에 달아 둔
베이컨의 살점을 가져와
아낌없이 좋은 곳을
크게 잘라 구웠다.
그리곤 마실 것을 가져러
밖으로 나가,
큰 컵에 가득 따라
두 차례나 권하곤 했다.
이 시는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다.

필레몬과 보시스는 절름발이
낡은 나무 식탁의 다리에 나무조
각을 끼워 받쳐 고정시킨 뒤 농사
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음식을 장
만하고 차렸던 것이다. 찾아온 손
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름다
운 풍속이 펼쳐진 것이다.

술병에서 술이 계속 흘러 나오

는 것을 보고서는 두 사람은 '이
손님이 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나
중에는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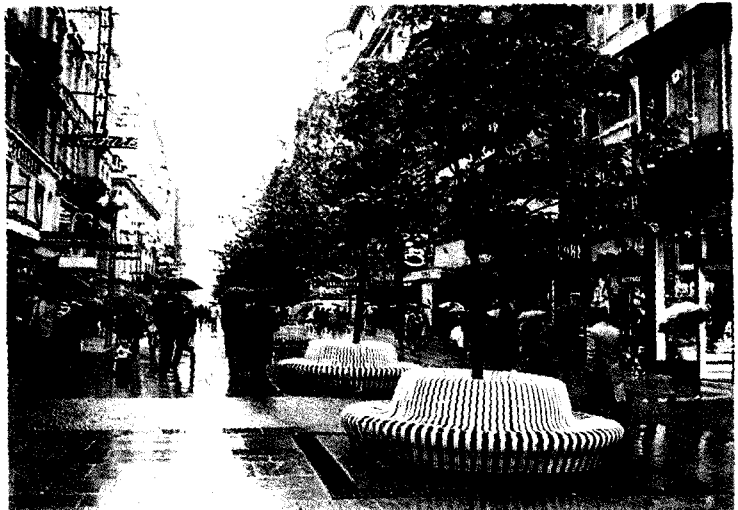
호뭇하게 대접받은 제우스는
그 은혜를 깊게 감사하고 두 사람
을 높은 산으로 인도했다. 그때
홍수가 나서 그 마을을 물 속에
잠기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은 생
명을 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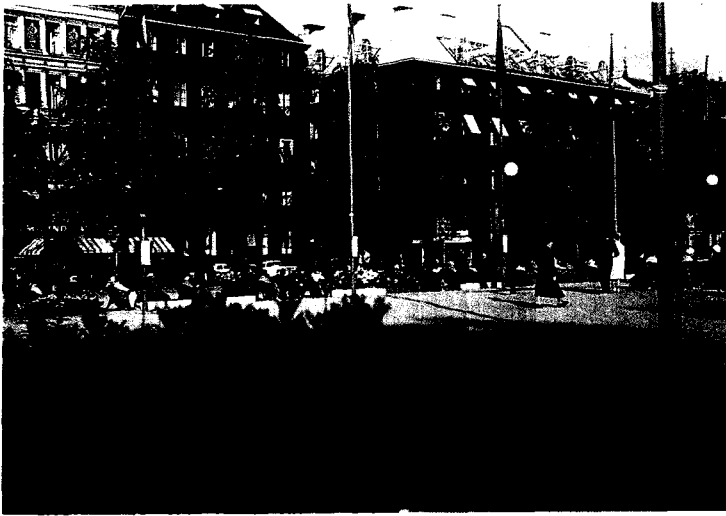
뒤에 그들은 제우스 신전(神
殿)의 관리자로 임명되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두 사
람의 최종적인 바람은 같은 때 죽
음을 만나 이 세상을 떠는 것이었
다. 제우스 신은 이들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죽는 찰라, 보시스를
피나무로 그리고 필레몬을 참나
무로 변신시켰고 두 나무의 가는
가지는 서로 맞대이고 꼬이도록
했다. 이러한 전설이 있어서 피나
무와 참나무는 사이좋은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다 한다.

피나무는 보시스의 화신답게
좋은 처가 지녀야 할 모든 미덕을
그 안에 담고 있다. 피나무는 아
름답고, 우아하며, 공손하고, 부
드럽고, 믿음성의 기풍을 간직하
고 있다.

목재는 희고 부드럽다. 희고 부
드럽다는 것은 여성이 갖추고 싶
은 하나의 조건같기도 하다. 동양
에 있어서는 죽간(竹簡)이라해서

▼음악과 같은 피나무가로수 비엔나시내 1980.10.10





▲ 피나무기로수의 녹음, 놀말름스틀그 근처 스톡크호름시내 1960.8.15

대나무 조각을 기록용의 도구로 했다지만 유럽에 있어서는 벌레가 먹지 않는다는 피나무 목판에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린덴(Linden)의 어원은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피나무의 속껍질의 성질을 말한 것이다. 유럽사람들은 피나무의 내피섬유로 포도나무 등 과목이나 덩쿨성 농작물의 가지나 줄기를 묶는 데에도 이용했다. 이것으로 묶으면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즐겨 사용했다.

착한 여자가 변신해서 피나무가 되었다는 신화는 우리의 정신 세계를 즐겁게 해준다.

울릉도의 나무와 섬피나무

일정시대(1933) 조선산림회가 간행한 조선 『임업일지』라는 책이 있고 이 책에는 일정초창기를 전후한 당시의 임업사정이 소개되

고 있다. 그 한 부분에 울릉도의 삼림자원의 파괴과정이 있고 이때 울릉도에 나는 섬피나무가 등장하고 있다.

울릉도의 주요경제수종으로서 는 섬피나무, 오동나무, 황벽나무, 너도밤나무, 단풍나무류 그리고 느티나무 등이었다. 울릉도의 오동나무는 일본으로 건너가 오늘날 일본오동나무의 시조가 되었다고 이름있는 수목학자 나카이(中井)박사의 소론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울릉도의 하늘이 내려준 귀중하고 풍부한 목재자원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에 의해서 허물어져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 그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 일로전쟁 이전 대한제국은 아름답리 나무가 짝 차 있었던 울릉도의 임목벌채권을 러시아에 허가해 준 바 있다. 러시아는 먼저 해군함정을 파견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때 그 안내를 맡은 사람은 일본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일본인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여 나무 없는 곳을 골라 안내했다. 이 말을 믿고 러시아의 군함은 되돌아갔으나 그 뒤 다시 찾아와서 느티나무 등 목재자원이 풍부한 곳을 안내하라고 했다. 러시아로서는 나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울릉도 남양만에 해군기지를 설치할 작정이었다고 한다. 나무가 없다는 말을 믿고 그 군함은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뒤 일로전쟁이 발발해서 러시아의 울릉도 임목벌채의 일은 없어진 것으로 되고 말았다.

그 뒤의 기록이 흥미있다. 그것은 이와같이해서 임목벌채는 일시적으로 방지되기는 했지만 그 뒤 일본사람과 조선사람이 마구 나무를 끊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꼴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울릉도의 산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기록인데 이때 누가 더 행동의 주축이었겠는가 하는 것은 독자가 살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울릉도에는 향나무 자원이 또한 풍부했다. 목재의 색깔이 더 진하고 향기가 높아 울릉도 사람들은 특히 백단(白檀)으로 말했다. 관재(棺材)로 이용되기도 했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얻는데 연료재로 향나무가 크게 수난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울릉도는 귀중한 목재의 보고였던 것이



▲찰피나무의 잎 1986. 10. 5

▲피나무의 잎 경북 직지사 경내 1987. 10. 5

인도보리수나무

인도보리수나무는 상록성의 활엽교목이며 나무높이가 10-20m에 이른다. 뽕나무과에 속하고 인도가 원산지이다. 나무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는 데에도 나무줄기의 직경은 대단히 굵고 직경 2m에 이른다.

잎은 이곳에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잎자루가 길고 잎에 거치가 없으며 다소 물결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잎은 혁질이고 잎의 끝이 좁고 길게 뻗어나가는 것이 특징의 하나이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줄기의 성장력이 강하며 좋은 녹음수의 구실을 한다. 결가지에서 많은 공기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땅에 닿으면 줄기모양으로 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한 나무가 나중에는 하나의 숲을 만들게 된다.

인도보리수나무의 열매는 무화과나무 무리의 하나이므로 꽃이

열매 안에 숨어 있어서 그대로는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 열매는 지름이 2cm 정도이다.

인도보리수나무는 석가가 이 나무 아래에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리수나무이다.

불교에는 3가지 신령스러운 나무가 있는데 석가의 탄생과 결혼에 관련되는 아쇼카(Ashoka)나무와 독도에 관련되는 인도보리수나무 그리고 열반에 관련되는 사라쌍수(沙羅雙樹)가 그것이다. 이때 다른 나무는 잘 알려지고 있으나 아쇼카(사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흔한 편이 못되고 있는 느낌이다.

아쇼카나무(또는 아소카나무 Asoca)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하는 키낮은 교목으로 잎은 우수우상복엽(偶數羽狀複葉)으로 거치는 없고 혁질이다. 등나무의 잎에 닮아있다. 꽃은 4-6월에 피고, 화량이 많고 향기를 가진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장차 불타로 될 고타마(Goutama) 보살이 샤키아(Shakya)족의 임금 슈드다나(Shuddhodana)의 왕비 마야(Maya)의 오른편 옆구리부터 어머니의 태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왕비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희와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성 안의 룸비니원(Lumbini 園)에서 있는 아쇼카나무 아래로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 뒤



▲아쇼카(아소카) 나무의 잎, 열매, 꽃



▲보리수나무의 줄기 하와이 1990. 11. 10

열 달을 채우고 왕비는 출산의 기미를 알게 되어 룸비니원으로 갔다. 그때가 초봄으로 원내의 모든 나무는 꽃을 달아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왕비가 어떤 아쇼카나무에 접근해 가고 있을 때 그 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아래로 드리우고 왕비가 오른팔을 들어 그 꽃을 만지고저 할 때 보살이 어머니의 왼쪽 옆구리로 나와 절어가니 땅이 갈라지고 그 곳에 큰 연꽃이 나타났다. 보살은 이 연꽃 안에 서서 <나는 세계에서 독존(獨尊)적인 존재이다.>라고 했다. 왕은 이 아들에게 싯다르다(Siddhartha, 悉達多)라는 이름을 지었다. 싯다르다가 커가면서 결혼을 할 때에는 아쇼카나무의 꽃바구니가 관련되고 있다. 이처럼 싯다르다의 탄생과 결혼에는 아쇼카나무가 관련되고 있다.

다음은 인도보리수나무이다. 이것은 처음에 이미 어느 정도 언

급한 바 있다. 석가(보살이라고도 했고 왕자라고도 했다)가 갖가지 고행을 하고 편력을 하고 난 끝에 인도보리수나무에 이르러 보리(菩提)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리수로 부르게 되었다. 보리의 뜻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이상으로 보는 <올바르게 깨달은 지혜>라 하는데 득도(得道)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 뒤 중국에서 잘못해서 피나무의 일종을 보리수나무로 말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피나무를 흔히 보리수나무로 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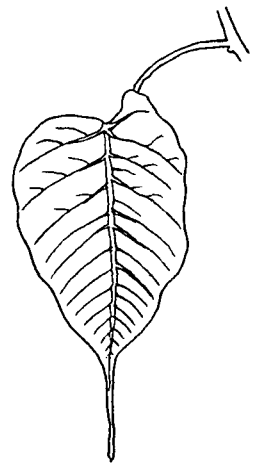
인도보리수나무는 그 뒤 점차로 신비스럽게 인식되어 갔다. 그리고 그 뜻이 거대한 것으로 되고 위대한 깨달음 또는 위대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불교에 있어서 장엄수(莊嚴樹)로 되었다.

인도보리수나무의 학명은 피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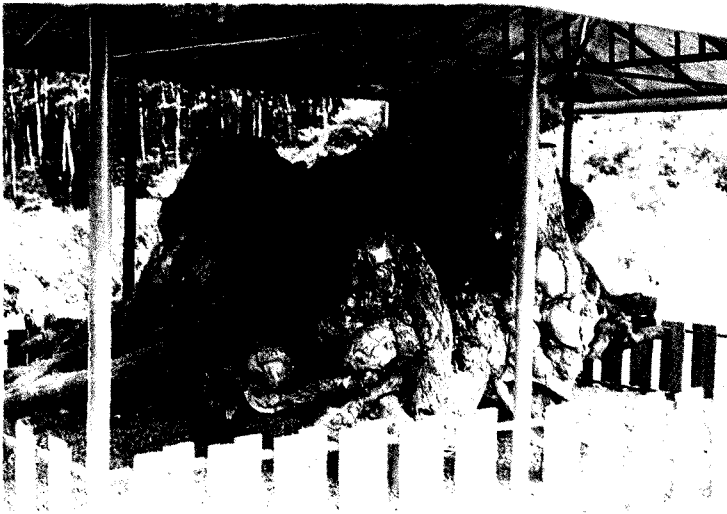
스 렐키오사(Ficus religiosa)이고, 일반명은 이 나무가 남쪽 열대지방에 분포해 있으므로 나라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어서 가령 보오츄리(Bo tree), 피이플 츄리(peepul tree), 세이크래드 츄리(sacred tree, 聖樹)가 일반적이거나 세이톤에서는 보들(Bodl) 또는 피팔(pipal), 아라차(Aracha)로 말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보들(Bodl), 피팔(pipal), 피이플(peepul), 아라(Ara)로 태국에서는 포오 츄리(po tree)로 말하는 등 다양하다.

반얀나무(banyan)이란 나무는 역시 무화과나무 속에 소속되는 나무인데 벨갈보리수나무로도 말하고 기근을 내는 등 나무의 형태는 인도보리수나무와 유사하다.

반얀나무의 학명은 피쿠스 벤갈렌시스(Ficus bengalensis)이고 상록교목이고 칼컷타의 식물원에 있는 것은 세계 최대의 것으로 수령이 약 200년, 수고 약 27m, 원



▲인도보리수 나무의 잎



▲ 찰피나무의 근계(根系) 대관령 휴양림에서 1993. 8

줄기직경 약 5m, 수관직경 약 130m, 수관둘레의 길이 약 500m, 기근의 수 1000여 개라는 조사치가 있다. 벤갈보리수나무의 학명에는 피쿠스인디카(Ficus indica)도 있어서 인도반얀(Indian Banyan)으로 말한다.

책에 보면 도를 얻은 석가는 일주일 동안 인도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신들의 축복을 받고 다음날 일주일은 명상에서 일어나서 반얀(벤갈보리수나무)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다시 명상에 들어갔다. 그 뒤 각 일주일씩 다른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으며 마지막 제5주째는 다시 인도보리수나무 아래로 갔다고 한다. 3주째와 4주째에 관련된 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다.

석가의 득도에 관련되는 나무에는 몇 종이 있는 셈인데 대표적인 것은 인도보리수나무이고 이에 벤갈보리수나무가 보조적으로

더 참여하고 있다. 요컨대 모두 무화과나무 과에 소속되고 형태에 유사성이 많고 우리가 말하는 보리수나무라는 명칭이 주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보리(菩提)는 범어 보우디(bodhi), 즉 '득도의 경지라는 말'에서 얻어진 것이다.

반얀이란 명칭은 어느 정도 상

인의 이름으로서 그 상인은 이 나무를 사랑하였고 더위를 피해서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장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 상인의 이름에서 반얀이란 나무 이름이 얻어졌다고 한다.

인도 서쪽에는 수관의 둘레길이 600m, 큰 줄기 350개, 작은 줄기 3,000개, 기근수 1,000개 이상, 그 아래 7,000명의 장병이 진을 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나무는 장수와 풍요의 상징으로서 신목으로 되어 인도국민의 숭앙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종교적 의식을 하는가 하면 이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많은 종류의 야생동물이 있어서 신앙의 분위기를 한층 돕는다고 한다.

불교의 3대영수의 마지막으로 열반의 나무 사라쌍수(沙羅雙樹)가 있다. 사라나무는 인도, 히말라야 등에 분포하는 상록성의 교목으로 수고 30-50m에 이른다.

▼ 피나무의 잎, 포, 열매, 강원 낙산사 경내 1994.7.15





▲ 불탑과 피나무의 조화 영동 영국사 경내 1955.7.6

앞에 12쌍의 맥이 있고 잎 길이가 15-25cm, 넓이가 10-15cm에 이른다. 3월경에 꽃이 피고 향기가 있다.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사라나무의 학명은 쇼래아 로브스타(Shorea robusta)인데 일반 명으로 sal 또는 sala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양재로서 라왕을 많이 수입해다가 사용했는데 사라나무는 라왕나무와 함께 쇼래아 속에 속하는 유용한 경제수종으로 되어있다. 티이크에 다음 가는 유용재 생산 수종이다. 즉 티이크, 히말라야시이다와 함께 3대 주요 수종으로 되어 있다.

석가가 입멸할 때 미리 그것을 예지하고 제자들에게 시상(죽음의 자리)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시상의 동서남북 쪽에 각각 한 쌍의 사라나무가 서 있었기에 쌍수(雙樹)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사라쌍수는 슬픈 나무(悲樹)로

알려지고 있다. 석가는 평소 사라의 숲 안에서 제자들과 종교활동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사라쌍수는 학림수목(學林樹木)인 것이다.

사라나무의 꽃은 담황녹색이지만 석가가 입멸할 때 꽃색이 모조리 잿빛으로 변했다고 하며 그래서 사라나무의 숲을 일명 학림(鶴

林)으로도 말한다. 또 잎이 말귀에 닮았다고 해서 마이수(馬耳樹)라고도 한다. 또 목재가 단단하므로 견고수(堅固樹)라고도 부른다.

사라나무는 열대 수종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재식할 수 없다. 그래서 사라나무의 잎에 닮은 노각나무를 사라나무의 대신으로 취급하고 사라쌍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일본사람들은 노각나무를 사라노끼(沙羅木)로 잘 말한다. 불교 신앙에서 유래된 명칭이나 석가의 입적에 연관되는 사라나무와는 다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노각나무를 절간 주변에 심어 참된 뜻으로의 사라쌍수를 연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노각나무를 일본사람들은 고려사라나무(高麗沙羅木)로 말한다.

▼ 인도보리수나무 아이오라니 궁전에서 하와이 1991. 여름

